

한국 바둑 초석 다진 '영원한 국수'

강진 출신 국수 김인 9단 별세

63년간 통산 860승 5무 703패 성적 국수전 6연패에 '김 국수' 별호 얻어 1968년 한국기원 최다 40연승 기록



그는 위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했고, 간암으로 전이돼 최근 급속히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이던 1962년 제6기 국수전에서 '한국 현대 바둑의 개척자' 조남철 9단에게 도전했으나, 1승 1무 3패로 패했다. 국수전이 끝나고 나흘 뒤인 3월 9일 그는 일본 유학 길에 올랐고, 조남철 9단의 소개 편지로 기타니 미노루 9단의 문하생이 됐다. 기타니 도장 사범 시절 그는 조지훈 9단을 지도하기도 했다. 1963년 11월, 스승 기타니의 만류에도 그는 20개월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한국기원은 "엄격하고 규율이 강한 기타니 도장 생활이 자유분방한 성격의 김인 구단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3세의 김 구단은 1966년 10기 국수전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조남철에게 3-1로 승리하며 국수 타이틀을 가져왔다. 한국 현대바둑 사상 첫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이후 그는 국수 6연패, 왕위 7연패, 패왕 7연패 등 국내 기전을 휩쓸었다. 하지만 1978년 13기 패왕전과 4기 기왕전에서 각각 조현현 9단, 김희중 9단에게 패하며 타이틀을 모두 잃었다. 고향 강진에서는 2007년부터 '김인 국수배'가 열렸다.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로 출범한 김인 국수배는 2008년 국제시니어바둑대회로 거듭났다. 2019년 10월 제13회 김인국수배를 주관한 고인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되자 무척 안타까워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한국 바둑의 거목' 김인 9단이 4일 지방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김인 9단은 1966년 10기 국수전에서 우승한 후 1971년 15기까지 국수전 6연패를 달성해 바둑계에서는 '김 국수'라는 별호로 통했다. 1943년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15세인 1958년 프로 입단했다. 1963년 귀국해 1966년 제1기 왕위전 우승을 시작으로 7연패·통산 8회 우승을 거뒀고, 1966년 제6기 패왕전 우승 후 7연패를 달성하는 등 통산 30회 우승, 22회 준우승의 기록을 남겼다. 9단으로는 1983년 승단했다. 1971~1975년 제5~8대 기사회장을 지냈고, 2004년부터는 한국기원 이사로 활동하며 바둑계를 지켰다. 63년간 한국기원 전문기사로 활약하며 통산 1568전 860승 5무 703패의 성적을 남겼다. 1968년 작성된 40연승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은 한국기원 최다 연승 기록이다. 1967년 승률 88.1%(37승 1무 5패)와 68년 승률

농협 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3부부 선정



전남에서 친환경 영농을 펼쳐온 농민 부부 3쌍이 4월 '이달의 새농민상'에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4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문명숙·전숙희씨 부부(강진군 작전면·강진한들농협), 이시우·임연자씨 부부(장흥군 회진면·전관농협), 이점용·김중희씨 부부(함평군 손불면·손불농협)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문명숙씨 부부는 15년 동안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해오고 있는 선도농업인이다. 현주농장을 경영하며 친환경농업연구회를 조직해 후계농업인 육성에 기여했다. 장흥군 기부와 지역봉사 활동도 이어왔다. 이시우씨 부부(대원농장)는 벼, 보리 재배와 한우 사육을 병행하는 30년 경력 복합영농인이다.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방제기술을 도입했다. 이점용씨 부부(군위산축산)는 지난 1995년 귀농해 현재는 한우 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체계를 스스로 구축해 친환경 축산물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달의 새농민상'은 매달(1·8·12월 제외) 지역농협을 통해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산림경영지도 학습동아리 개최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손철호)는 최근 광산구 수안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산림경영지도 추진계획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열고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과 경영지도 강화·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제공>

'신군부 만행 규탄 연설' 故 김동혁 씨 이달의 5·18 유공자 선정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김동혁 씨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80년 5월 항쟁 당시 교사였던 고인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날의 상황을 종합

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알렸다. 또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개최된 시민결기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신군부의 반민주적인 폭거와 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5·18 항쟁 주동자로 같은 해 12월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출소했지만 고문 후유증 등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1996년 2월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아농협, 32명에 장학금 전달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흥식·사진)은 지난 1일 광산구 수안동 본점 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 행사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학금 수여 대표 학생과 학부모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비아농협은 32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6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백희준 기자 bhj@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팔도밥상 스페셜 50 불면해도 괜찮아 55 한국의 인류유산	00 달이 뜨는 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주 별의여신 50 뽀빠리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넷워킹 뉴스 50 행복설계 알짜배기
①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20 아무튼 출근 스페셜 55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55 닥터 365
②	0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③	05 미나디(재)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30 이 맛에 산다	40 맨 인 블랙스(재)
④	00 시사간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2(재) 55 닥터 365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⑩	00 와이드 맵 플러스 10 가요무대	40 개는 훌륭하다	40 바퀴쫓기 홈즈 스페셜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⑪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⑫	20 시사 직격(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00 스포츠 매거진 4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나이트라인 30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EBS1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5 포텐독
06:50 다큐 오늘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7: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07:15 미니특강대 슈퍼공공파워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30 두다다쿵	14:10 EBS 다큐프라임	19:35 자이언트 팽TV
07:45 속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딩동댕 유치원	15:15 클래스 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출동! 슈퍼왕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이것이 진짜 트레킹! -스웨덴 콩스레덴>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21:30 한국기행
09:00 뽕뽕뽕 뽕로로	16:0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당신을 위한 하룻밤 1부 날마다 소풍>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마사와 노래해요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아생의 지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23:35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5일(음 2월 24일 癸未)

<p>36년생 확실히 조처해야만 낯날의 악재를 원천 봉쇄하게 된다. 48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 60년생 빨리 포기할 수록 이익이다. 72년생 처리 방법과 기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84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96년생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32, 92</p>	<p>42년생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54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6년생 지나치면 마찰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78년생 재만사가 양호하게 시작 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리라. 90년생 고생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02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3, 96</p>
<p>37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49년생 풍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61년생 외형까지 손질 한다면 훨씬 더 빛나리라. 73년생 두서없는 변수로 인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는 국면이니 진중하라. 85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97년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31, 77</p>	<p>43년생 하등의 문제가 없다. 55년생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얻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67년생 과감하게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79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91년생 취약점이 보이니 서둘러 보완해야겠다. 03년생 중재대한 것이니 절대로 놓치지 않음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5, 98</p>
<p>38년생 예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50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62년생 자신 있게 행한다면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 낸다. 74년생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86년생 마음에 담고만 있지 말고 내비춰야 의미가 있다. 98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93, 90</p>	<p>32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기하게 된다. 44년생 행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6년생 실행하기 전에는 겁이 나겠지만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님을 알 것이니라. 68년생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 볼 일이다. 80년생 사소한 흠결을 주의 하라. 92년생 본디대로 대항이나를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3, 86</p>
<p>39년생 꾸준히 실행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51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63년생 약조권이 오히려 호재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75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87년생 공통적이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99년생 번거롭더라도 막상 해 놓고 보면 실리가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59</p>	<p>33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45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57년생 처우와 거의 대등소이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69년생 지금의 판도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허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81년생 매우 강도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93년생 할까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44, 80</p>
<p>40년생 상대를 위해서는 자세는 공격적으로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되리라. 52년생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64년생 끌려 다니지 말고 주체적이어야 한다. 76년생 일일이 확인하라. 88년생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느니라. 00년생 강력한 기운이 감돌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3, 50</p>	<p>34년생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46년생 도움이 될 것이니라. 58년생 간접적인 조처는 가끔씩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70년생 여러 가지를 전문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82년생 번거로움이 대단할 것이니라. 94년생 미흡함이 보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2, 71</p>
<p>41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곤혹스러움이 보인다. 53년생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65년생 보류되었던 바가 재개되어 탄력을 받게 된다. 77년생 확실히 성취하는 시세이다. 89년생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판세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01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왔던 것이 큰 변수를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35, 74</p>	<p>35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47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계획대로라면 대박이 날 것이다. 59년생 보고도 차질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하겠다. 71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라. 83년생 파악은 하되 처리는 보류함이 유익할 것이다. 95년생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8, 66</p>